

사설

구호물자보다 교육지원을

-유엔 빈곤퇴치의 해에 부쳐

올해는 유엔 빈곤퇴치의 해이다. 우리에게도 율령이적 시절이 있었다. 식민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풀뿌리를 연명하던 때가 잊고 있었던 듯한데 소득 1만불이라는 기적의 시대를 열었다. 절대 빈곤 인구가 200만이라 한다. 이 수준은 인도의 4억3천만, 중국 1억1천만, 브라질의 7천200만명에 비하면 경이적인 발전이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년개발청 관리의 이렇게 말한다. "25년전 한국과 방글라데시 모두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2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우리는 170달러로 후퇴했다. 170달러도 정부발표미 믿을 수 없다" 빈곤국의 공통점은 교육수준이 낮고 부의 독점적 편재가 심각하다는데 있다. 빈곤은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은 저소득을 낳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5%미만의 부유층이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면서 실업은 적체되고 인플레이션이 솟는다. 사람들은 권리를 의무도 모른 채, 당장 먹고 먹을 것 외에는 다 사치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간다.

한국을 거기서 건져올린 일등공신은 교육열일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감각, 능력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그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 사실은 빈곤퇴치에 있어 관건이 생산의 총량이 아니라 사회적 코드라는 것을 일러준다. 아프리카와 남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그들의 상호 교섭의 규모가 작고 또한 분절과 독립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에는 나름의 전통과 관습의 자연 질서를 형성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세계가 달라졌다. 달라진 세계의 정보구조, 무역구조, 권력구조에 그들은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

대에 발빠른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는 근대 인도와 근대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비극은 서구의 근대화와 그 부산물인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물고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인 바에야 그들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식민의 충격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모든 국민적 국가적 에너지를 서양의 제도와 코드를 익히는데 전력했다. 우리가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거창한 사업에 동참하는 주체로 성장한 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노력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빈곤의 퇴치는 변화된 시대의 코드를 교육을 통해 지도 계몽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도적 국가들은 미국처럼 자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들 나라들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유도하는 공작적 책동을 접어야 한다. 또한 당장 필요한 식량이나 구호물자를 살려주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모르되 그 또한 부의 편재라는 현실 속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교육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법과 사회적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 등을 그들의 실정에 맞게 고안하고 실행하도록 지도 계몽해야 한다.

불교계도 유엔의 기치에 수회동참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우리는 선우·동선반야회 등을 통해 벌써 시작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불가의 무어행은 삼통정정(三輪淨淨),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고요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하는 이타의 방편을 질실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열린 마당

새싹불자를 키우자 - 현장의 소리

대 호 (스님·제주 원영유치원장)

신세대 맞는 포교환경 조성

50대에 들어서 가끔 내자신의 성장기를 회상해 보면 안타까워진다. 방법을 바로만나 삼학(三學)의 환경 가운데서 유년기로부터 기초를 다져왔다면 청소년기를 방황하거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과 같은 신세대에게는 빠르게 변화된 사회의 영향하에서 전문적인 대응능력 개발이 있는 포교효과와 기대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중립종교대학교에 불교교육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소를 구비하여 최우선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아들의 참선, 신앙심교구 프로그램이나 장·단기수련과 인격도야를 위한 수행의 효과적 방법이 포교현장에 맞도록 활용되고 병행되어야 한다. 그럴때만이 초년기에서 만난 불법을 통해 그 영향이 일과파로 확산되어 정도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천 중 (스님·선학원 지도법사)

청소년 전문포교사 양성을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 문제로 치닫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문문화와 기성세대와의 차이점 여러방면에서 세대차이를 느끼며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교도 청소년 근본문제에 대한 종교적 이

96년 불교청소년의 해가 밝았다. 본지는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청소년 포교를 위해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연중 캠페인으로 전개한다. 먼저 청소년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이학승 (광동여고 교법사)

96년 불교청소년의 해가 밝았다. 본지는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청소년 포교를 위해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연중 캠페인으로 전개한다. 먼저 청소년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정대법화 (봉곡사 신도·학부)

중·고학생회 없는 사찰태반

동네의 작은 교회에 가보면 유치부에서 중·고·청년회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유치부 또는 중·고학생회가 없는 사찰이 대부분이며 또 있어도 타종교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 전문 청소년포교사 양성기관의 설립 등 청소년 불사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불교는 청소년 불사에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 우리민족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때다.

이영재 (생문3동어린이집 원장)

자녀와 함께 예불참석하자

새싹불자들이 자꾸만 줄고 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절에 가는 것을 보고 마귀성에 간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절에 같이 가려고 찾아보면 어느새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고 있을 때가 많다.

이는 불자부모와 스님들의 책임이다. 오직 자신만 잘 공부하고 믿으면 된다는 좁은 소견이 우리 어린이불자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스님들은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도 어린이 포교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 귀찮고 성가시다고 어린이법회를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스님들은 신도들에게 절에 올 때는 가능한한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찰에서는 어린이불자를 위한 버스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어린이법회 교사들은 불교사상이 담긴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 법회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지선 (선재마을 대표)

불교 팬시용품 대중화모색

그동안 선재마을을 운영하며 각종 불교팬시용품을 개발해 왔지만 아직 불교팬시용품의 대중화나 그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우선 시중에 나와있는 현란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에 이미 우리의 청소년들은 익숙해져 있고, 또한 판매할로 개척도 열악하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팬시용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부 사찰의 어

맞은 양질의 가르침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학승 (광동여고 교법사)

청소년프로그램 다각 연구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는 이제 불교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 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 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 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선, 장기적 안목하에 청소년 포교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일과성·대의홍보성 계획이 아닌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사찰 학생회의 집중적인 지원·육성을 통한 자비문화대역시 중점을 뒀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포교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뿌리를 삼는 것이다. 이런 기본조치와 방향의 탄탄함 속에서만이 실질적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선 (선재마을 대표)

불교 팬시용품 대중화모색

그동안 선재마을을 운영하며 각종 불교팬시용품을 개발해 왔지만 아직 불교팬시용품의 대중화나 그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우선 시중에 나와있는 현란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에 이미 우리의 청소년들은 익숙해져 있고, 또한 판매할로 개척도 열악하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팬시용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부 사찰의 어

린이 청소년 법회나 신도들만이 사용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불교팬시용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교, 더욱 우리사회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 한 방법이 우리의 새싹불자들을 내일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다. 어린이불자들에게 맞는 재미 있고 유익하여 다양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등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일들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불자의 관심과 열성만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박숙정 (월간 동쪽나라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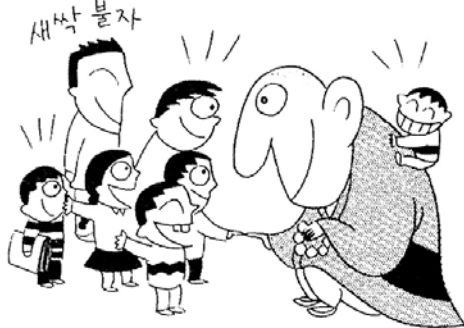
어린이 문화공간 확대해야

1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계의 어린이 잡지 <동쪽나라>가 어린이들과 만나 온지 7년. 하지만 기독교 <새싹>과 카톨릭 <소년>은 40여년이 된다.

전통만큼 잡지를 통한 어린이 포교의 역할은 몇십배 아니 몇백배의 차이가 난다(새싹·소년 5만부, 동쪽나라 6천부). 이처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타종교의 경우 지나치리 만큼 전폭적이지만 유독 불교신자들의 관심은 예외(?)이다. 그것은 분명 부끄러움이다.

<동쪽나라>와 더불어 어린이들과 만나고 싶은 굵도순례를 통해 몇날 며칠 밤새고 연습해 근사한 연극을 발표하며 어린이들의 신나고 밝게 튀어오르는 세상과 만나는 감동을 이겨는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고 싶다.

현대만평



눈높이 포교

목어

'나만이' 여사는 만화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40대의 중산층 주부다. 그녀가 등장하는 만화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펴낸 '난 아내' '나만이 여사의 시민의식'이란 부제가 말해주듯 이 만화는 주부들의 시민의식 결여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만이' 여사는 남편 고달퍼씨와 아들 고성문(고1) 딸 고민숙(중2)과 함께 산다. 공

중도덕을 공중에 뜬 도덕쯤으로 알고있는 그녀의 질서 의식은 '無'다.

내것을 챙기기 위해 이웃을 전혀 생각 않는 그녀는 알체적이다. 따라서 봉사정신은

'나만이' 여사와 박미선 씨

달걀만큼도 없다. 성적이 곧 행복수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아이들에게 과열과외를 강조하고 잔소리가 심하다. 뿐 아니라 그는 과소비에 수다와 낭비, 화투놀이등 나쁜 버릇을 다 갖췄다. 국제화시대에

대한 감각이나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다. 박미선씨(朴美仙·29)는 얼굴도 모르는 가난한 여대생에게 신장을 기증, 병자녀 생애 벽두를 환한 웃음으로 밝힌

실제 인물이다. 일간지는 그녀를 '행복 나눠주는 천사주부'라고 했다.

그녀는 남을 돕고 싶어 직장을 가졌다. 서산에서 생활 설계사로 일하는 그는 틈틈히 고아원을 찾고있다. 94년 11

월 사람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장기기증서를 제출할때는 남편이 반대할까봐 사후기증으로 속여 도장을 받아냈다.

"나는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의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만이' 여사와 박미선씨중 우리는 누구를 닮았으며,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인가. 새해가 되었다고 모두를 새출발을 다짐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외침이 곳곳에서 일고있다. 그 답은 바로 '나만이' 여사와 박미선씨중 누구를 닮느냐에 있지 않을까.

불기 2540 1996년 1월 새해, 새날-맞는 곳마다 부처님 땀 되게 하소서

사업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 사장 유 월 탄
원 장 김 용 정
실 장 홍 윤 식
상임이사 김 현 해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차원B/D 6층
☎ 736-6202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는 나의 그림자, 나는 너의 그림자임을 깨달아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겠지요.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답니다.

중상, 모략, 시기, 질투, 전쟁, 질병, 기아 등 인간고통의 근본원인은 모두가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의 소산들이랍니다.

여기,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내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소중한 고귀한 인연의 도리를 일깨워 보고자 「생명 나눔 실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후(死後) 장기 기증은 물론, 생존시(生存時) 장기 한쪽을 기증하여 죽어가는 고귀한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본 모임의 대표이신 석용산(공덕원 회주) 스님은 이미 자신의 한쪽 안구와 한쪽 신장을 한 소녀와 소년에게 기증키로 결정했으며, 석지광 스님, 정휴휴 거사, 무량인 보살도 생전 기증회원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생명 나눔 실천 운동」에 함께 하시어 인간의 숭고한 품성과 자비 사랑의 본래 심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접 참가는 못하셔도 「후원회원」이 되셔서 수술시 소요되는 많은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인연에 동참할 수 있으면 합니다.

회원분류

- 생전(生前) 기증회원
- 사후(死後) 기증회원
- 지정(指定) 기증회원(기증하고 싶을 때를 스스로 지정함)
- 후원회원 - 1구좌당 매월 1만원
- 후원구좌번호 - 부산은행 083-12-050967-0 김영호

후원

청구그룹, (주)동환산업, 동아대 의원, (주)고려원, 문학수첩

생명 나눔 실천 모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1동 370-5번지 용성빌딩 5층 공덕원
전화 : (051) 625-2253 · 2254, 627-5498

총무 정종석 합장